



## 유럽, 은행 자본 확충 · 그리스 국채 상각률 조정 · EFSF 확대에 합의

이정환 선임연구원

- EU는 10월 26일 유럽정상회의와 27일 후속 회의를 통해 유럽 은행의 자본 확충 방안, 그리스 국채 상각률 상향 조정, 유럽재정안정기금(EFSF) 확대에 대해 합의하였다고 발표함.
  - 금번 유럽 정상들의 합의로 그동안 유럽 재정위기 해결의 걸림돌로 작용해 온 그리스 국채 문제에 대해 해결 발판이 마련됨.
  - 독일 총리는 이번 합의가 재정위기 차단을 위한 진전된 조치라고 평가함.
  - EU 집행위원장은 향후에도 유럽의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 취할 것이라고 밝힘.
  
- EU는 유럽정상회의에서 유럽 은행의 신뢰회복과 신용경색 방지를 위한 자본 확충에 대해 합의함.
  - 2012년 6월 30일까지 유럽 은행의 자본을 확충해 핵심자기자본 비율(core tier capital one)을 9%로 높이도록 함.
  - 2011년 9월 30일에 실시된 은행권 추가 스트레스 테스트에 따르면 유럽 은행들이 9%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1,060억 유로 규모의 자본을 확충해야 할 것으로 추정됨.
  - 은행이 1차적으로 시장에서 자본을 자체 조달하고, 2차적으로는 해당국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으며, 최종적으로는 정부를 경유하여 EFSF으로부터 지원받도록 함.
    - 자본 확충이 완료될 때까지 은행의 배당금 및 보너스 자제와 구조조정을 요구함.
    - 또한, 자본 확충으로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 흐름이 경색되지 않도록 요구함.
  
- 또한, EU는 10월 27일 후속 회의를 통해 그리스 국채 상각률(헤어컷)을 현재의 21%에서 50%로 높이기로 합의함.
  - 프랑스 대통령은 10월 27일 약 10시간에 걸친 협상 끝에 유럽 은행들을 비롯한 민간채권자들이 그리스 국채 상각률을 50%로 상향 조정하는데 합의했다고 발표함.
  - 이로 인해 그리스의 채무 중 1,000억 유로가 삭감될 것으로 보임.

- 10월 26일 정상회의에서는 국채 상각률이 50%를 상회할 경우 유럽 은행들이 자금난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40%가 적정하다는 주장이 프랑스 등 그리스 국채 보유량이 많은 국가를 중심으로 제기되었음.

■ 유럽 정상들은 유럽재정안정기금(EFSF)을 1조 유로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합의함.

- EU는 4,400억 유로 규모의 EFSF 중 예정된 구제금융 지원분을 제외하고 이용 가능한 2,500~2,750억 유로를 4배 레버리징하여 1조 유로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합의함.
- EU는 EFSF 확충 방식으로 국채 투자위험에 대한 보증과 IMF 등의 참여를 통한 특수목적투자기구(SPIV) 설립 방안이 병행될 것이라고 밝힘.
  - SPIV는 유동성 추가 확보와 대출능력 확대를 통해 은행 자본 확충 능력을 제고하며, 국채 발행 및 유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회원국의 국채 발행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  - 중국 등 신흥국가들이 자금 공여자로 참여하고 IMF가 SPIV를 주관하도록 함.

■ 그러나 유럽중앙은행(ECB)의 국채 매입에 대해서는 의견이 상충되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함.

- 독일은 그간 ECB가 아닌 EFSF가 위기국의 국채를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원칙론적 입장에서 ECB의 국채 매입을 반대함.
- 또한, 독일은 정상회담 성명서 초안에 명시된 ‘비관행적 방법’을 통한 ECB의 국채 매입이 ECB가 더 많은 국채를 유통시장에서 사들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힘.

(Bloomberg 10/27, Wall Street Journal 10/27, Financial Times 10/27)